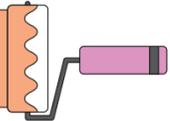


짧은 역사 속 지역 미술행사·기획전시 ‘고군분투’

새로쓰는 예향 지리지

<3> 큐레이터



시립미술관·비엔날레 등장 계기 90년대 전문학예분야 인식 생겨 2000년대 지역대학에 학과 신설 미술관 증가에 전공 1세대 늘어 “대규모 전시 기획 능력엔 의문”

【미술】 *‘큐레이토리어’란?

단순히 미술작품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것을 넘어 지적,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대상을 조명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큐레이터의 예술활동.

“잘 만든 전시” 하나가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시대다. 흥행한 전시는 곧 도시의 이미지를 만든다. 광주가 아시아 미술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단계로서 예술활동의 다원화가 중요해지는 이유다. 그 중심적 역할에는 광주의 풍경을 예술적으로 진단하고 대안을 제안하며 창작자와 별개로 또 다른 창조적 저자성을 갖는 ‘큐레이터’가 있다. 굵직한 미술행사, 다양한 기획 전시가 이어져 온 광주 아트씬에서 고군분투했던 큐레이터 발자취를 되짚어 본다.

● 첫 ‘단독건물’ 광주시립미술관

단순히 작품을 진열해 놓는 것을 넘어선 전시 ‘큐레이팅’ 개념이 광주화단에 등장한 것은 광주시립미술관이 개관하고 광주비엔날레가 창설된 1990년대다. 1992년 광주시립미술관은 당시 북구 운암동 광주문화예술회관 자리에 국공립미술관 중 최초로 개관했다. 그 전에 전일빌딩 내 ‘전일미술관’이나, 동구 황금동 옛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내 ‘미술전시관’, 조선대 미술대학 내 ‘조선대미술관’ 등의 개관 사례는 있었지만, 광주에서 전시를 위한 단독 건물로서 미술관이 등장한 것은 처음이었다.

광주시립미술관 개관은 곧 전시기획, 미술품 보존, 지역 미술사 연구 등을 수행

하는 전문 ‘큐레이터’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특히 광주시립미술관은 1995년 광주비엔날레 창설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크게 일조했는데, 지역에는 대규모 미술 박람회에 투입할만한 전문인력이 전무해 광주시립미술관은 조직위원회를 꾸리고 소속 학예연구사를 파견하는 등 광주비엔날레 창설을 주도했다.

● 2000년대 큐레이팅 개념 등장

제1회 광주비엔날레 개최 이후, 광주화단에 현대미술의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여전히 광주미술은 동양화 의재 허백련, 서양화 오지호로 대표되던 시기였다. 광주미술의 정체성인 오희회화를 체계적으로 조명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1999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전문학예사 자격의 개념도 생겼다. 광주화단에서 큐레이터의 역할이 점점 대두됐다. 이에 2000년대 들어 지역대학 미술학과에 미학·미술이론 관련 전공이 새로 신설됐다.

이후 광중에 여러 사립·구립 미술관이 들어섰고 대학 전공 1세대들은 미술현장을 빠르게 채워나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비엔날레재단, 광주시립미술관 등 기관 자체적으로 미술이론 및 실기강좌를 통해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면



제1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식 모습.

(재)광주비엔날레 제공

현존하는 광주의 독립 큐레이토리어 활동들

이름	대표 프로그램
호랑가시나무창작소	레지던스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및 국제교류전시
바림	광주에서 펼쳐지는 예술적 활동에 대한 비평, 에세이 등 출판 및 기록
지구발전오라	국가폭력 사건·지역작가 생존에 대해 탐구한 기획전시
뽕뽕브릿지	광주 대표 달동네 서구 발산마을 문화적 재생
오버랩	독립큐레이터 양성 프로그램 ‘ICC’
예술공간 집	신진 지역작가 예술세계 조명하는 ‘넛지 프로젝트’
산수씨리	옛 월산파출소 공간성 재조명한 오픈스튜디오 ‘월산C’
스페이스 디디에프(DDF)	예비예술인·기획자 지원 프로그램 ‘Peer Up’
포도나무 아트스페이스	기획자 중심 지원 프로그램 계획 중
1995Hz	지역문화 자산 토대로 비평, 전시, 창작 활동 위한 프로젝트팀 결정

서 전문적으로 미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인구도 늘었다. 광주미술의 스펙트럼은 점점 넓어졌다.

광주 1세대 큐레이터 장경화 전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실장은 “광주화단에 ‘큐레이팅’ 개념이 등장한 역사가 짧기도 하고 대규모 미술 이벤트를 기획할만한 자본이 부족하다는 것이 마지막 넘지 못하고 있는 문턱이다”며 “전문 큐레이터가 수적으로 늘어났지만, 블록버스터급 메가 전시를 기획할만한 전문인력이 등장했는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화단에서 큐레이터의 역할은 단순히 전시, 교육, 연구, 미술품 보존 등을 넘어 글로벌 문화 마케팅, 미술인 육성, 미술인구 저변 확대, 도시 브랜딩 등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아시아 미술의 중심지로 광주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굵직한 미술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광주 출신 큐레이터 인력들의 현장경험 기회를 늘리고 역량을 키우기 위한 개인의 노력도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 광주화단에 ‘대안공간’ 등장

미술관을 벗어난 독립큐레이터의 등장은 광주화단을 더 다채롭게 했다. 이른바 예술씬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안하면서 실험적인 미술을 주도하고 미술관과 상업 갤러리를 표방하지 않는 ‘대안공간’이 광주에도 등장한 것이다. 그 출발은 대인시장이었다. 2008년 즈음 대인예술시장에 예술인들이 모였다. 지역 전통시장이라는 공간성과 싼 집값, 동구 예술의거리와 지리적 인접함 등이 특징이었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이러한 대인시장의 특성에 주목해 ‘복덕방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빈 점포를 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아트마켓, 공연 등을 열면서 ‘시장과 예술의 만남’을 이끌었다. 예술이 콘셉트가 된 대인시장에 2009년 광주 1세대 대안공간 ‘미테-우그로’가 문을 열면서, 예술인을 비롯해 많은 독립큐레이터들이 이곳에서 경험을 쌓았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미테-우그로는 다양하고 실험적인 전시, 세미나, 워크숍 등을 열었고 지역에서는 보기 드물게 태국, 일본, 네덜란드 등 해외 국가들과 국제교류를 진행하면서 문화공간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다. 이곳에서 경험을 쌓은 독립큐레이터들은 오버랩, 지구발전오라, 뽕뽕브릿지 등의 또 다른 대안공간을 조성했다.

광주 대표 대안공간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을 운영하는 정현기 대표는 “광주에 대안공간이 늘어난 결정적 계기는 대인시장 내 조성된 아트씬이었다. 이는 큐레이터들이 미술관을 벗어나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한 단초가 됐다”며 “비엔날레라는 국제적인 미술행사처럼, 이미 광주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술도시로서 기능하고 있다. 민관 가리지 않고 학예인력이 강화되어야 할 이유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미술관을 벗어난 독립큐레이터들 그룹 ‘오버랩’

2015년 결성 김선영·박유영 대표 예술가·기획자 실험전 협업 지양 대표 프로그램 큐레이터 양성과정 버려진 도시 공간 예술적 조명 등 “예술씬 진단하고 대안 제시 목표”

“창작자는 많지만, 기획자는 없는 광주 아트씬의 기형적 구조가 눈에 들어왔어요.”

광주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오버랩(OverLab)은 ‘독립큐레이터 그룹’을 표방한다. 2015년 오버랩을 결성한 김선영, 박유영 대표는 ‘광주아트씬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큐레이토리얼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미술관을 벗어난 큐레이터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오버랩은 큐레이터와 예술가들의 활동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내 인적 인프라가 부족한 독립큐레이터의 활동을 지원 및 양성하고자 한다. 광주의 여타 갤러리, 미술관과 구별되는 특징으로 ‘큐레이터’에 방점이 찍힌 공간인 셈이다.

그 대표 프로그램이 ICC(Independent Curator Collaboration)다. ICC

는 지역 내 인적 인프라가 부족한 독립큐레이터의 활동을 지원하고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공모를 통해 1년에 한 번 2~3명 정도의 참여자를 선정하고 5개월간 세미나, 비평 워크숍 등의 활동을 이어간다. 마무리 단계에서 참여자가 직접 큐레이터가 돼 작가를 섭외하고 기획전을 꾸리는 경험도 갖는다.

올해까지 ICC에 참여한 인원은 총 16명에 이른다. 눈에 띄는 가시적 성과는 ICC를 거쳐간 참여자들이 산수씨리, 장동콜렉티브, 스페이스 디디에프(DDF) 등 또 다른 독립큐레이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덕분에 미술관 밖의 광주아트씬은 한층 더 다채로워졌다.

김선영 대표는 “창작자와 함께 호흡하는 기획자들이 함께 발맞춰 성장해야 그 지역의 아트씬이 비로소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광주에는 창작자도 많고 주요 미술 무대도 많지만, 그에 반해 아이러니할 정도로 기획자가 없다. 큐레이터 양성 프로그램은 오버랩에 숙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비엔날레 등 굵직한 미술행사와 광주 거리마다 존재한 아트씬의 간극도 좁힐 필요성도 체감됐다”며 “기획자로서 다양한 예술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이 오버랩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의 독립큐레이터 그룹 오버랩.

ACR(Artist Collaboration Residency)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이는 광주 출신 예술인과 필리핀 바롤로드 출신 예술가들을 서로 교환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다.

참여작가들은 두 도시에 대한 리서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공동 예술활동을 이어가며 그 결과로 결과보고전을 치른다. 도시의 공간성을 예술적 활동으로 조망하고 아카이빙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오버랩의 목적인 ‘큐레이토리얼’ 활동에 부합한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운영 10주년을 맞이해 올해 10월 말 전시를 앞두고 있다.

광주의 버려진 공간 일신방직, 전남방직, 광주교도소 등을 예술적 기록 차원에



왼쪽부터 오버랩의 박유영, 김선영 대표.

서 접근한 활동도 눈에 띈다.

오버랩은 지난 2022년 광주의 근대산업유산인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부지에 대한 여러 사회적 이슈 속 ‘공장’을 주제로 한 웹 전시 ‘도시직조 WeavingLab.’을 선보였다. 장소의 역사성을 돌이켜보고, 일부 사라질지 모를 공간과 삶에 대한 기억 그리고 새로운 미래의 동력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담은 전시였다. 앞으로도 광주의 공간을 예술적으로 조명하고 탐구하는 여러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큐레이터 조직으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다. 광주화단의 독립큐레이터에 대해 아카이빙 작업을 최근

시작한 이유다. 사라진 광주에서 독립큐레이터가 언제 시작됐는지, 사라진 단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존하는 단체는 무엇인지, 이들의 실태는 어떤지 조사해 책으로 엮는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김 대표는 “애초에 유목적 활동을 이어오다 지리적으로 미술 인프라가 전혀 없는 월산동에 자리를 잡은 이유는 백지와 같은 공간에서 독립큐레이터의 정체성을 쌓고 싶어서였다”며 “21세기 큐레이터 역할은 이미 다양해지고 있다. 광주의 여러 이슈를 읽어내고 미술과 연결시키는 실천적 활동을 통해 광주 예술씬 안에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글·사진·도선인 기자